

현안과 과제

14년만에 서비스수지 흑자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1. 최근 서비스수지 현황

(서비스수지 현황) 최근 서비스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5월까지의 서비스수지는 전년동기대비 42억달러 개선되어 14.9억달러 흑자로 전환되었다. 서비스수지는 1998년 이후 적자를 지속해왔으나, 최근 여행수지 및 건설수지 등이 크게 개선되면서 14년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2. 서비스수지 흑자의 배경

(흑자 배경) 2012년 서비스수지의 흑자의 배경으로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일본, 중국 등 아시아로부터의 외래관광객(입국자)은 크게 증가한 반면 해외여행객(출국자)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2012년 1~5월 외래관광객은 전년동기대비 약 24% 크게 증가한 반면, 해외여행객은 7.3% 증가에 그쳤다. 또한 외래관광객의 1인당 지출액은 1,366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한 반면 해외여행객의 1인당 지출액은 1,123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2% 감소했다. 특히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관광객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여행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동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수주 확대 등의 영향으로 건설서비스 수지의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건설서비스수지는 2012년 1~5월에 71.6억달러 흑자로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26.2억달러 개선되었다. 특히 중동과 중남미에서의 건설수주는 각각 전년대비 29억달러, 38억달러 증가하며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어, 하반기에도 건설서비스수지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셋째, 운송서비스수지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세로 운송서비스수지의 흑자가 확대되었다. 2012년 1~5월에 운송서비스수지는 42.6억달러 흑자로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대부분 지역에서의 수출입물동량이 증가세를 나타냈고, 특히 유럽과 북미 수출입화물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2년 1~5월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17.5%, 4.7%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하반기 운송서비스 수지의 흑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3.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2년 서비스수지의 개선은 여행업, 해운업, 건설업 등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2012년 1~5월에 서비스수지 흑자로 실질 GDP는 692억원 상승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2011년 같은 기간의 213억원보다 3.2배 증가한 것이다. 서비스 관련 산업에서의 신규고용창출과 외래여행객의 증가 등으로 내수가 증대되어 외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외화가득률 및 원화 안정성 증대에 따르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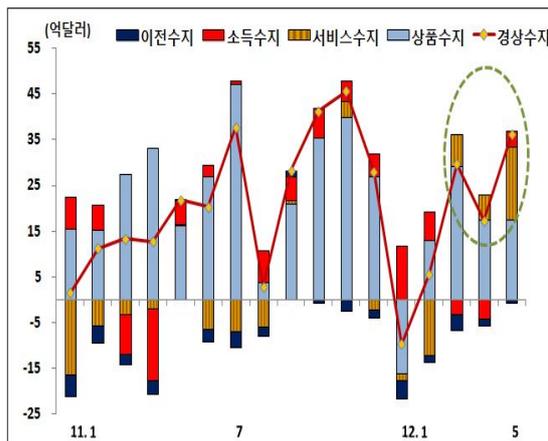
(대응 과제) 2012년에 서비스수지가 14년만에 흑자를 이룰 수 있도록 하반기 서비스수지 증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 여행수지 증대를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숙박시설의 증대, 관광 인프라의 확충 및 한류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금융 지원 및 중동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운송서비스수지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 국내 해운업체와 항공 운송업체를 위한 육성 정책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최근 서비스수지 현황

○ (현황) 최근 서비스수지는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2년에 서비스수지는 14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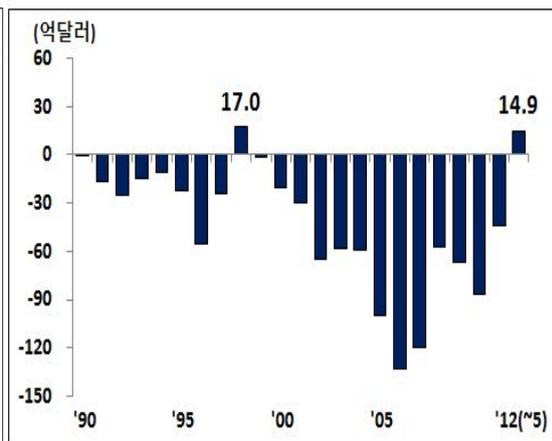
- 2012년 1~5월 전체 서비스수지는 전년동기의 27.0억달러 적자에서 14.9억달러 흑자로 전환
 - 서비스수지는 3~5월에 28.4억달러 흑자 기록. 서비스수지 개선에 힘입어 2012년 1~5월 경상수지는 79.1억달러 흑자 기록
- 2012년 서비스수지는 1998년 이후 14년만에 처음 흑자가 기대
 - 서비스수지는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여행수지 및 건설수지 등이 크게 개선되면서 2012년 1~5월에 14.9억달러 흑자를 나타내 14년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

< 서비스수지 및 경상수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서비스수지 장기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주요 항목별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1~5월)	증감액
서비스수지	-57.3	-66.4	-86.3	-43.8	14.9	41.9
여행서비스	-92.9	-52.2	-84.2	-71.6	-18.2	18.6
건설서비스	110.8	117.5	96.8	120.9	71.6	26.2
운송서비스	80.0	52.4	93.1	92.6	42.6	2.1
사업서비스	-142.8	-150.1	-135.9	-169.2	-70.3	-3.4
기타서비스수지	-12.4	-34.0	-56.0	-16.6	-10.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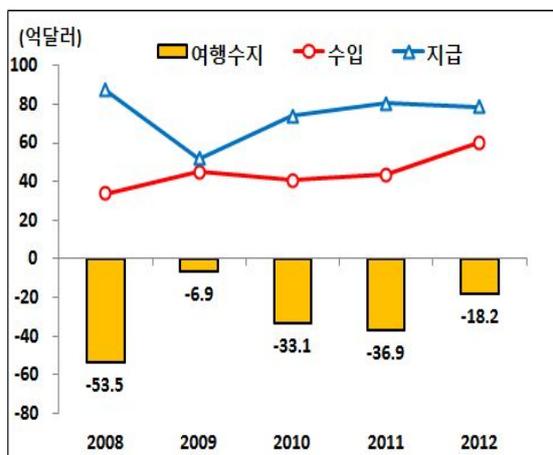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1) 2012년 증감은 전년동기대비. 2) 기타서비스수지는 지재권 등 사용료, 금융, 보험, 개인문화·오락·통신, 컴퓨터 및 정보, 유지보수, 정부서비스.

2. 서비스수지의 흑자의 배경

- (외래관광객 증가) 중국 등 아시아로부터의 외래관광객수(입국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해외여행객(출국자) 증가세는 둔화
 - 여행서비스수지 : 2012년 1~5월 여행서비스수지는 -18.2억달러로 2011년 같은 기간의 -36.9억달러보다 18.7억달러 적자가 축소
 - 2012년 1~5월 여행수지의 수입은 60.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7억달러 증가
 - 반면 2012년 1~5월 여행수지의 지급은 78.5억달러로 2011년 같은기간 80.4억달러보다 1.9억달러 감소
 - 항목별 여행서비스수지 : 업무여행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었고, 관광여행수지는 적자폭이 크게 감소. 유학 및 연수 관련 여행수지도 적자 감소
 - 업무여행수지는 2011년 1~5월 0.6억달러 적자에서 수지가 크게 개선되어 2012년 같은 기간에 7.9억달러 흑자로 전환
 - 관광수지도 2011년 1~5월 -17.9억달러였으나 2012년 같은 기간에 -9.4억달러로 약 47% 적자폭이 축소
 - 이는 상반기 원화 약세 및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해 해외 여행객 및 유학, 연수생 등이 감소한 반면 중국, 일본 등 외래관광객과 업무차 방문하는 바이어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여행수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각 연도별 1~5월 자료 기준.

< 항목별 여행수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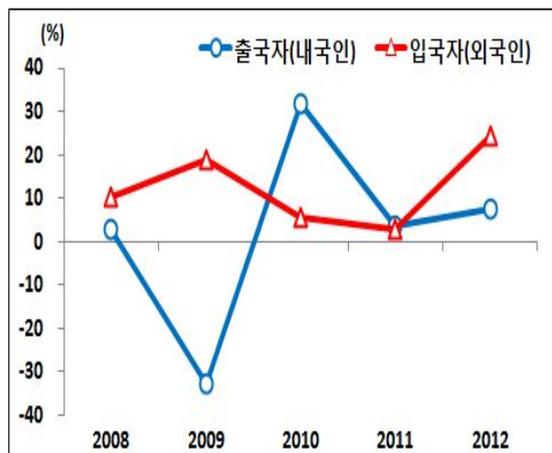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업무	-6.7	7.6	6.1	-0.6	7.9
관광	-27.8	-1.1	-21.5	-17.9	-9.4
유학 연수	-18.6	-13.3	-17.7	-18.2	-16.8
건강	-0.3	0.0	0.0	-0.1	0.1
합계	-53.5	-6.9	-33.1	-36.9	-18.2

자료 : 한국은행.
주 : 각 연도별 1~5월 자료 기준.

- **외래관광객 증가** : 2012년 외래관광객수와 1인당 지출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해외여행객의 증가세는 미미했고 1인당 지출액은 감소
 - 2012년 외래관광객은 1~5월에 43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3만명보다 24.3%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은 549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3% 증가에 그침
 - 2012년 1~5월 외래관광객의 1인당 평균지출액은 1,366달러로서 2011년의 1,238달러보다 10.3% 증가한 반면 해외여행객의 1인당 지출액은 1,123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2% 감소
- **아시아 관광객 증가세** : 일본과 중국 관광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홍콩,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관광객 수도 증가세 유지
 - 일본 관광객은 엔화 강세¹⁾ 및 골든위크 등의 영향으로 2012년 1~5월에 152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2.8% 증가
 - 중국 관광객은 노동절 및 여수엑스포, 비즈니스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2년 1~5월에 96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9.3% 증가²⁾
 - 9~10월 중국의 휴가시즌과 엔화 강세 지속, 한류 문화의 아시아 진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아시아 관광객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해외여행객과 외래관광객 증가율 추이 >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 : 각 연도별 1~5월 자료 기준.

< 주요 국가별 외래관광객 추이 >

(단위 : 천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본	964	1,343	1,226	1,141	1,515
중국	484	527	675	740	957
홍콩	61	91	92	100	138
대만	148	170	168	136	208
필리핀	115	116	124	134	138
전체	2,748	3,261	3,437	3,532	4,391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 : 각 연도별 1~5월 자료 기준.

1) 2012년 1~5월 엔달러 환율은 79.4엔으로 2011년의 82.3엔보다 약 3.5% 평가 절상되었고, 위안화 환율은 2012년 1~5월 6.6위안에서 6.3위안으로 약 3.7% 평가 절상되었음. 반면 원달러 환율은 2011년 1~5월 1,106원에서 2012년 1~5월에 1,137원으로 2.8% 평가 절하되었음.

2) 전체 외래관광객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1.8%에서 2011년 22.7%로 크게 증가. 외래관광객들의 한국 방문 동기 중 쇼핑을 목적으로 한 쇼핑형 관광객 비중은 2007년 전체 관광객 중 12.6%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35.5%를 기록하는 등 약 3배 정도 급증. 현대경제연구원, “일천만 외래관광객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 변화” VIP Report. 2012. 7. 13.

○ (해외 건설수주 호조세) 중동 및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외 수주가 확대되면서 건설서비스 수지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건설서비스수지** : 2012년 1~5월에 71.6억달러 흑자로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26.2억달러 증가
 - 건설서비스 수입은 2012년 1~5월에 90.5억달러로 2011년 같은 기간의 56.4억달러보다 약 34.1억달러 증가
 - 건설서비스 지급은 2012년 1~5월에 18.9억달러로 2011년 같은 기간의 11.0억달러보다 7.9억달러 증가

- **해외 수주 증가세** : 중동과 중남미에서의 수주 확대로 2011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서비스 수지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동에서의 수주액은 28.5억달러 증가. 중남미에서의 수주액은 37.9억달러 증가. 아시아는 공사건수가 소폭 감소했으나 수주액은 5억달러 증가
 - 이는 중동 국가들이 재스민 혁명과 리비아사태 이후 민생 인프라 확충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중남미와 아시아 개도국들의 인프라 및 플랜트의 발주 물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12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700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에도 건설서비스 수지의 증가가 기대됨³⁾

< 건설서비스수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각 연도별 1~5월 자료 기준.

< 지역별 해외건설수주 실적 비교 >

(단위 : 건,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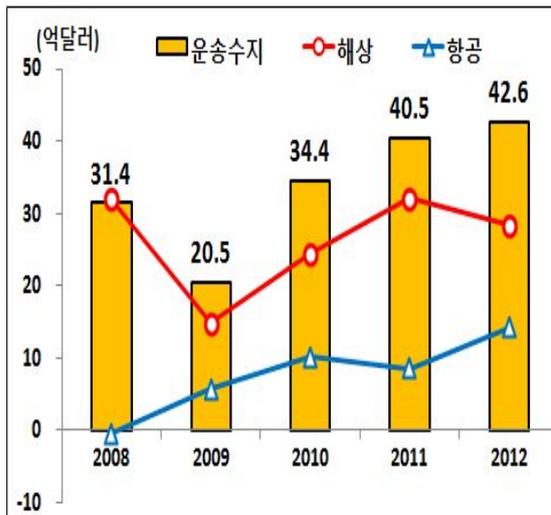
	2011		2012	
	공사건수	계약액	공사건수	계약액
중동	47	173.5	50	202.0
아시아	185	60.5	184	65.5
북미	8	9.4	6	0.8
유럽	14	1.3	26	2.6
아프리카	22	8.0	21	7.7
중남미	13	5.8	23	43.7
합계	289	258.6	310	321.6

자료 : 해외건설협회.
주 : 각 연도별 1월~7월 자료 기준.

3) 해외건설협회, “2011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분석 및 2012년 전망” 참고.

- (수출 운송 화물 증가) 운송서비스 수지는 2009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출입 물동량 등의 증가로 운송서비스 수지의 증가세 지속이 기대
 - 운송서비스수지 : 2012년 1~5월에 운송서비스수지는 42.6억달러 흑자로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기록
 - 해상 운송서비스수지는 2012년 1~5월에 28.4억달러 흑자로 전년동기대비 3.6억달러 흑자 소폭 감소
 - 항공 운송서비스수지는 2012년 1~5월에 14.2억달러 흑자로 전년동기대비 5.7억달러 흑자 증가
 - 수출입 물동량 증가세 : 해상 운송서비스수지에 영향을 주는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운송서비스수지의 흑자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
 - 2012년 1~5월 수출입화물처리량은 5억 5,586만톤으로 2011년 같은 기간의 5억 3,987만톤보다 약 3.5% 증가
 - 중남미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의 수출입화물이 증가했으며, 특히 유럽과 북미 수출입화물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1~5월에 각각 410만톤, 210만톤 증가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2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목표를 2011년 대비 8.0% 증가한 2,330만TEU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운송서비스수지의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⁴⁾

< 운송서비스수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각 연도별 1~5월 자료 기준.

< 수출입화물 처리실적 비교 >

(단위 : 백만톤%)

구분	2011	2012	증가율	
국적별	국적선	61.5	62.9	2.3
	외국선	378.3	399.0	5.5
지역별	아시아	203.5	211.8	4.0
	북미	45.8	47.9	4.7
	유럽	23.7	27.8	17.5
	중남미	27.9	26.9	-3.7
	중동	78.5	82.8	5.4
	아프리카	11.6	14.3	23.3
	기타	48.7	50.3	3.3
합계	539.9	558.9	3.5	

자료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주 : 연도별 1~5월 자료 기준.

4) 국토해양부, “2012년 항만물동량 전망” 보도자료 2012. 2. 10.

3.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2년 서비스수지 흑자는 실질 GDP의 증가 등 국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

- 경제성장에 기여 : 2012년 서비스수지의 흑자는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로 실질 GDP의 상승 및 고용 확대, 내수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옴
 - 2012년 서비스수지의 개선은 여행업, 해운업, 건설업 등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기여
 - 2012년 1~5월에 서비스수지 흑자로 실질 GDP는 692억원 상승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2011년 같은 기간의 213억원보다 3.2배 증가
 - 또한 서비스 관련 산업에서의 신규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소득 증대와 외래여행객의 증가는 부진한 내수 소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 서비스수지의 흑자는 경상수지 증대와 외화가득률 개선으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제고
 - 서비스수지 흑자시 외환보유고의 안전판인 경상수지의 개선과 외화가득률이 개선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 충격으로부터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제고
 - 서비스수지 흑자 증대로 외환보유고의 안정성이 증대되면 원화 환율의 안정성과 신인도가 높아짐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

○ (대응 과제) 14년만에 서비스수지의 흑자가 기대되는 만큼 하반기 서비스수지 증대 및 향후 흑자 지속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여행수지 증대를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숙박시설의 증대, 관광 인프라의 확충 및 한류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일본과 중국 등 근거리의 아시아 관광객의 유치 확대를 위한 관광 상품의 개발과 의료 및 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의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원 확대
 - 9~10월 중국의 휴가시즌을 대비하여 서울 및 주요 도시의 숙박시설 및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적극적으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야 함
 - 아시아 등지에서 한류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므로 한류 문화와 연계된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

-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금융 지원 및 중동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강화
 - 오일달러가 풍부한 중동 지역의 민생 인프라 구축 및 대규모 플랜트 건설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건설 수주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
 - 이를 위해 현재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장기 저리의 대출 규모 확대 및 해외 건설 모범 기업을 선정하여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
 - 또한 UAE 원전 수주 등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규모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 수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운송서비스수지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 국내 해운업체와 항공운송업체를 위한 육성 정책과 지원 정책이 필요
 - 해운업 육성을 위해 화물 운송시 국적선 이용비중 제고, 해운 규모 확장 및 항만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금융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항공운송업체의 자금난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과 지방 공항의 활성화 등 육성책 마련이 필요 **HRI**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최성근 (csk01@hri.co.kr, 2072-6223)